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2. . .

의결 사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2022. 4.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목적	1
2.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1
3. 조사개요	2
4. 조사방법	2
5. 조사결과 처리	2
6.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현황	3
7. 조사경과	4
8. 증인 신문 주요 내용	5
9.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9
10. 종합의견	14
11. 첨부자료	16
가. 행정사무조사 구성결의서	16
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7
다. 언론 보도자료	26
라. 주요활동 사진	4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1 조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 대회 추진 과정과 시설물 준공 후 드러난 하자보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발의 : 2022. 1. 12. /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 ※ 위원회 구성 : 2022. 1. 18. /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활동기간 : 2022. 1. 18.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김 낙 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 세 구	"	
위 원	박 교 상	기획행정위원회	
	김 택 호	산업건설위원회	
	권 재 욱	"	
	김 재 우	기획행정위원회	
	이 선 우	"	
사무보조자	김 차 병	기획행정전문위원	
	김 문 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 근 태	행정 7급	
	박 한 기	속 기 사	
전문가 자문인	한 영 국	대한건축사협회 구미지역건축사회 회장	건축분야
	방 건 준	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분야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기관 : 구미시
- 조사대상 기간 : 전국체전추진단 활동기간('17년도 ~ '22년도)
 - ※ 단, 조사에 필요시 추진단 활동기간을 초과하는 자료도 요구할 수 있음
 - ※ 추진단 활동기간 : 201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 조사대상 사무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업 전반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집행 전반
- 사무범위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체 현황
 - 각종 공사(보수) 현황, 사업비 집행 등

4 조사방법

-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의 확인·검토
- 사업 현장방문(관계 공무원 동행) 등
-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신문(질의·답변 등)

5 조사결과 처리

- 조사결과(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 처리요구사항, 의견 등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이송
-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구미시장→의회)

6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현황

○ 자료제출 현황

-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공사 관련
 -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준공도면(건축,토목), 설계도(데크),건축 분야 기성금 및 준공금 관련서류 15권, 데크 철거 공사 시방서 등
- 구미시민운동장 검도장 마루 개보수 공사 관련
 -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설계도, 개보수 시공 사진 및 관련 서류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마룟바닥 관급자재 현황, 개보수 공사 시방서, 설계도, 건축내역서 등
- 구미시민운동장 육상 트랙 공사 관련
 -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최초 공사 지출서류(하자보수보증서, 시공사진, 관급자재 구입 등), 하자보수 공사 지출서류(하자보증서, 착공계, 준공계 관련 서류 등), 최초 설계도면, 타 지자체 설치 현황, 감리업체 현황 등
- 전국체전 종사자 근무복 제작 관련
 - 지출서류(하자보수보증서, 과업지시서, 직접생산증명서), 납품 기간 연장신청,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개찰 관련 서류, 적격 심사 탈락업체 적격심사내역, 시험성적서 등

○ 증인 채택 및 출석 현황

연번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1	증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은희	
2		체육진흥과	과장	장인수	
3		체육시설관리과	과장	추상익	
4		안전재난과	과장	박경하	
5		광평동	동장	이민수	
6		회계과	과장	지영목	
7		서울사무소	소장	엄기득	
8		업무과	계장	최범식	

7 조사경과

일 자	차 수	활 동 내 용	비 고
2022. 1. 18.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특위 구성결의안 본회의 통과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2. 1. 21.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2. 2. 10.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증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 전문가 자문인 위촉요청의 건	
2022. 2. 16.	현장방문	• 현장방문 및 현황청취 -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 구미시 검도장 -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2022. 2. 22. ~ 2. 23.	자료검토(1차)	•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	
2022. 2. 24.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증인 신문의 건	
2022. 3. 2. ~ 3. 8.	자료검토(2차)	•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	
2022. 3. 10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현안 사항 논의의 건	
2022. 3. 21.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추가 요구 자료 검토의 건	
2022. 3. 22. ~ 3. 31.	자료검토(3차)	•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2022. 4. 12.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4. 19.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증인 신문 주요 내용

- 일 시 : 2022. 2. 24(목) 14:00 ~ 17: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6명 (위원, 자문인, 증인)
- 논의안건 : 1건 (증인 신문의 건)
- 세부내용 : 4건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 증인신문 주요 지적사항 요약

건별	주요 발언내용	비고 (집행기관 답변)
복합 스포츠 센터 누수	· 설계상 하자 없고, 시공과 공사감리에 하자 있음. · 방수제 추가 도포, 바닥 경사면 두어 보수 권고.	
	· 설계상 하자(배수 시설 누락)있고, 시공에도 하자 있음.	
	· 前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복합스포츠센터 누수의 보수 공사 관련하여 하자보수로 진행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비용 부담하게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 · 시비(6천 4백만원)를 투입하여 데크를 철거하고 누수 보수 공사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 시비 투입이 아니라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책임질 부분임. 시공 다른 부분 감리보고서 요구.	
	· 설계, 시공, 감리 부분이 모두 하자 있음. 근본적 대책을 찾고 의회 보고 후 시비로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고 업체의 책임도 물어야 함.	
	· 시공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 설계상 하자 있음.(시스템 마루틀, 발구름 충격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현 개보수 공사는 목재마루틀 방식으로 사용상에 문제 발생소지 적음.	
	· 시공의 문제는 없음. 목재마루틀 방식은 습기와 지속적 충격에 변형 가능성 있음.	
	· 근본적 설계 문제이며,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마루 나무 재질이 불량.	
	· 시공의 문제로 볼 수 없음.(똑같은 공법으로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과 검도장을 시공하였는데, 검도장만 문제 발생.) · 하자 원인 규명 없이 급하게 시비(1억 2천) 투입하여 개보수 한 것이 문제.	
	· 책임감리 보고서 제출 요구 · 총고가 낮은데 검도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음.	· 연습장으로 맞지 않음.
	· 검도팀 감독과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용상 불편이 예상됨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사용자 의견 반영 없이 공사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복합스포츠센터와 검도장에 기 투입된 시비를 하자 보수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	· 사용자 측과 협의하면서 진행하였음. · 이미 공사 끝내고 사용중이므로 하자보수 주장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전선, 배수관 등의 재배치로 총고 확보 가능하지 않았나? · 검도팀 등의 사용자 측과 협의 없이 시스템 마루틀 공법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	· 전선, 배수관 등의 재배치는 검토하였으나 현재 배선이 복잡한 관계로 재배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천장 지지대, 오수관 등의 기존 시설물을 재배치하였으면 총고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왜 재배치하지 않았나? ·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	

구미시민 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 시료 채취 없이 하자의 원인 규명은 어려움.	
	· 시트 시공업체와 아스콘 포장업체 사이에 합의 후 시트 시공을 하였고, 아스콘은 불투성이라 아스콘의 틈이 없는 이상 시트 아래에서 물이 차오르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트 시공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움.	
	· 운동장 배수 조치 미흡한 채로 트랙 공사를 진행한 것이 하자의 원인임.	
	· 원인 규명 향후 계획은?	· 소년 체 전 종료 후 현장 시료 채취하여 하자 규명하겠음.
	· 책임지는 업체가 없다면 아스콘, 시트 두 업체의 공동 책임 아닌가? 소송준비까지 준비해 달라.	
	· 트랙 자재가 이탈리아 제품에서 국산 제품으로 바뀐 이유는?	·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과정부터 국산제품으로 검토하였음.
	· 시트는 업체가 직접 시공하였나? · 하자보수 시 부분 보수가 아니라 한 롤 단위로 시공해 달라.	· 직접 시공했음.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 원단은 고어텍스로 계약한 것인가?	· 고어텍스로 계약하였음.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한 것으로 안다. 한국의 고어텍스협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납품기한이 2차례 지연된 이유는?	· 1차 연장은 디자인 확정 내부 논의로 14일 연장하였고, 2차 연장은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하게 되었음.
	·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한 내역 있나? · 근무복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 이에 대해 문제점 느끼지 못하였나?	· 없음. 입찰로 진행함. · 문제 느끼고 수선 조치 후 1차 납품 받았음. (1년 동안 교환, 유지보수 조건)
	· 문제 있는 근무복을 체전 임박해서 받아 어쩔 수 없이 배부한 것인가? · 1억 8천만원은 모두 지급되었나? · 교환한 209벌은 고어텍스 소재인가?	· 그렇게 되었음. · 모두 지급되었음. · 이전 근무복과 동일함.
	· 시방서 상의 샘플 제출해 달라. 최초 납품 샘플과 납품된 근무복은 다른 물건임.	
	· 전량 회수하여 재 제작·배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원단이 고어텍스가 아니라면? · 원단에 대한 원단 확인서 확인해 달라.	· 업체의 사기로 봄.
	· 관내 업체로만 제한하여 낮은 품질의 근무복 생산 업체가 선정된 것임. · 납품 지연이 되었다면 납품 받지 말았어야 했음.	

▶ 이번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 구미시에서 전국체전을 시행하면서 불거진 주요 현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만한 시설 관리와 예산 낭비 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2022년 1월 18일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본 위원회는 김낙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세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체전 근무복 등 4개 주요 사안에 대한 회계 관련서류의 검증 및 현장방문과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중 조사특위를 가며 여기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선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한 예우와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됨.
- 또한 집행기관 제출자료 부실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특위 차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어 전국체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선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가 불가피함.
- 특위에서는 7차례 회의를 비롯하여 위원 간 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등 내실 있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다음과 같이 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음.

1.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 본 사업은 예산 248억 원을 투입하여 2020. 12월에 준공했음. 준공한 지 2개월도 안 된 '21. 2월말에 1층 볼링장 38번 레인 조명기구와 1층 내부 화장실 앞에 누수가 발생되었고 이후 1층 남자 탈의실과 내부 창고, 외부창고에 누수가 순차적으로 발생되었음.
- 방수 공사에 1억6천2백만 원이 지출됐고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023년 12월 22일(준공 후 3년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 없이 업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시설비(사고이월분) 6천4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 외부 우수노출이 많아 누수원인으로 판단하여 철거한 2층 데크의 경우 당초 설계 시 경사도를 주지 않았고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아 우천 시 물이 계속 고이게 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데크 하부 콘크리트와 건물 경계면에 틈이 존재하고 데크와 접해있는 건물 외벽 단열재 사이에도 틈이 존재해서 설계와 시공 및 공사감리에 하자가 있어 보임.

□ 조치 요구 사항

- 하자보수로 투입된 시설비를 명확한 원인 규명 조치를 통해 업체에 시설비 환수 요구.
- 충분한 설계 검토 없이 예산 4천4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2층 데크가 불과 1년도 안 돼 누수가 발생되어 6천4백만 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철거하고 시공한 부분에 대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요구.
- 2층 데크 콘크리트 코어 샘플링 후 콘크리트 압축 강도 테스트 및 철조 콘크리트 함양 비율 테스트 결과 요구.
- 향후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누수 발생 시 업체 하자보수 요구.

2.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일환으로 2020. 12월에 시스템 마루틀 공법을 적용해서 구미시 검도장 바닥 공사를 준공했고,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검도선수단 연습실로 사용하다가 마루 바닥에 유격이 발생했고 체전기간(2021.7~10월)중 경상북도 전국 체전기획단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검도장 바닥이 추가 손상됨.
- 검도장 특성상 층고가 2.9m 이상 확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장소를 고집했고 검도장과 복싱장 바닥공사 시 동일한 관급 자재를 사용했지만 유독 검도장에서만 하자가 발생.
- 시설비 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했지만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사고이월분) 1억2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음.
- 당초 바닥공사 시 시스템 마루틀 공법을 적용했지만 개보수 공사에는 목재 마루틀 공법을 적용했음. 다른 공법을 선정했다는 것은 검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상 하자이며, 현 마루틀 공법은 목재 특성상 습기와 지속적인 충격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향후 하자 관리에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조치 요구 사항

- 하자 원인 규명 없이 투입한 개보수 공사비(1억2천)에 대해서 원인 규명 후 업체에 공사비 환수 조치.

3.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구성에 예산 1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0.12월 준공하여 2021.7월 시민운동장 육상 1종 공인 점검 중 시트 들뜸 현상을 최초 발견하여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
- 육상트랙 구성 시 아스콘 업체와 트랙 시트 업체가 달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기간이 2022년 12월 6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육상트랙 하자보수에 시설비 1천9백만 원을 사용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제3항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시설비를 추가로 투입했음.
- 아스콘 특성상 균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아스콘 상층 또는 하층에서 유입되는 수분은 그 반대 층으로 누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시트를 커팅해서 부분 보수하는 기간에도 아스콘, 시트 업체와 전문 업체 입회하에 원인 규명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란 판단도 듬.
- 아울러 현 상태로는 전국소년체전 육상 대회 시 선수 부상 위험이 있으며, 향후 육상경기장 제1종 공인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조치 요구 사항

- 5월 소년체전 종료 후 시트 시료를 채취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하자 책임이 있는 업체에 부분 보수에 사용된 시설비를 환수 하고, 현재 레인 안에 패치 형식으로 부분 보수된 부분을 롤 단위로 하자보수 요구.

4.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 전국체전 종사자 근무복 제작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경상북도 지역제한으로 입찰.
- 관내 소재 업체와 예산 1억6천만 원(1벌 기준 78,230원)에 계약.
- 당초 납기일(2021.9.10.)에서 납품 지연 등으로 2021.10.4.로 납품. 사이즈 하자과 봉재선 등 품질 저하 등으로 문제점 발생.
- 과업지시서상에는 견본품 3점 이상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시제품 제작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전량 제작에 임하며, 반드시 시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 부서에서는 견본품과 시제품 미 보관.
- 아울러 납품 후 규격 차이, 불량제품, 착용감 불편 등으로 착용에 부적합 할 경우 해당 물품을 재 납품 하여야 하며 모든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근무복 전량(2,046복)에 대해 재제작을 요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임했으며 근무복 교환은 불과 209벌로 전량 대비 10%에 불과.
- 업체 견적서와 제작된 근무복 안 라벨에는 고어텍스라고 명기돼 있으며 과업지시서상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수행자는 원단 제조사의 원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원단 확인서 확인 불가.

□ 조치 요구 사항

- 근무복 원단 확인 후 계약서와 다른 원단인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
- 근무복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후 업체에 근무복 재납품 하자보수 요구.
- 향후 물품 계약 시 해당 공무원 과업지시서 이행 철저 요구.

10 종합 의견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드러난 부실한 시설 관리와 예산 낭비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행되는 행정사무조사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조사특위 경시태도와 비협조(무관심)으로 증인 신문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에서 원했던 성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음.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원 폄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집행기관 견제장치인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의미를 퇴색시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조사 결과,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의 누수와 구미시검도장 바닥 하자에 따른 개보수공사, 구미시민운동장 육상 트랙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 없이 시설비(사고이월분)을 추가로 투입해서 하자보수 하였고 근무복 납품 시 규격(사이즈)하자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부실한 검수로 하자보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확인되었음.
- 집행기관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9건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 및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특위의 요구자료에 대한 집행기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특위 경시 태도로 인해 특위에서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전국체전 기간 종료 후 집행기관 자체적 감사를 통해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국체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시설관리와 예산 낭비 등 공익을 저해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필요함.

□ 구미시 각종 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제언 (제도 개선)

○ 일정금액 이상의 市 발주 공사 사업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 준공, 하자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가칭 <구미시 건설 사업단> 같은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전담 기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사후 관리 철저 등 기대.

○ 또한 발주청(공사관리관)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업무지침서(발주청 기본임무) 규정 등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민 운동장 검도장 및 육상트랙 공사 하자를 책임 감리 탓으로 전가. 안전사고 예방과 부적절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미시에서는 책임 감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 감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첨부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2. 1. .

제안자 : 김낙관, 권재욱 의원 (2명)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회 준비 및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해 효율적 능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 : 7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나. 존속기간 : 2022. 1월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조사대상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추진사항 전반

라. 조사범위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첨부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목적	19
2. 관련법규	19
3. 조사기간	19
4. 조사내용	20
5.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20
6. 조사일정	21
7. 조사방법 및 조사진행순서	21
8. 조사결과 처리	22
9. 소요경비	22
10. 주의사항	22
11. 기타사항	2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 조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 대회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01. 18.)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결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위원 선임

3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2. 1월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4 조사내용

- 조사대상 기관 : 구미시
- 조사대상 기간 : 전국체전추진단 활동기간('17년도~ '22년도)
 - ※ 단, 조사에 필요시 추진단 활동기간을 초과하는 자료도 요구할 수 있음
 - ※ 추진단 활동기간 : 201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 조사대상 사무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업 전반
 - ※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 사무범위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체 현황
 -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등

5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김 낙 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 세 구	"	
위 원	박 교 상	기획행정위원회	
	김 택 호	산업건설위원회	
	권 재 욱	"	
	김 재 우	기획행정위원회	
	이 선 우	"	
사무보조자	김 차 병	기획행정전문위원	
	김 문 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 근 태	행정 7급	
	박 한 기	속 기 사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차후 위촉

6 조사일정

일 정	조사장소	조사내용	비 고
2022. 1.	조사위원회 회의실	• 조사 및 활동계획 수립	
2022. 2.	조사위원회실 및 현장확인 등	• 1차 조사활동 -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 현장 방문 - 조사 사항 확인 및 의견 청취	
		• 2차 조사활동 - 서류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시)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2022. 3. ~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	조사위원회 회의실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7 조사방법 및 조사진행순서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2.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3. 증인 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4.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질의형식으로 진행
5.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6. 필요시 현장 확인·검증(관계 공무원 동행)

나. 조사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증인선서
3. 피조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4. 일반사항 및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5.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언·진술)
6. 조사결과 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8 조사결과 처리

- 조사결과(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등 구미시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구미시장→의회)

9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간담회, 토론회 등), 사무보조자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10 주의사항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준수
 - 조사특별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주의의무) 준수
 - 조사특별위원 및 사무보조자 등은 조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징계)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3조(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가능

11 기타사항

○ 증인 출석요구

-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구미시 관계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증인 출석요구서(안) : “붙임1”

○ 선서요령

-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 1인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선서(안) : “붙임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별표)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되도록 함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본회의 보고·채택

-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의결(채택)
- 의장 제출
-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채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구미시의회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22. . ~ .
(기간 중 필요시 출석요구)
2. 출석장소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방법 : 조사기간 중 필요에 따라 출석

2022. .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선 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

【첨부 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 자료**

2022년 1월 ~ 3월



**구 미 시 의 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경북문화신문

표결 끝에 결국 취수원 · 전국체전 특위 구성

취수원 반대 특위 위원장 윤종호 의원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김낙관 의원

구미시의회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위 2건의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취수원은 특위보다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종료됐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취수원 반대 특위)가 재차 구성되면서 의원간 찬반이 엇갈렸다.

송용자 의원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가 대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만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특위가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의회는 독립적, 중립적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고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는 특위는 위원회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의회의 위상에 배치되고 모순된다"며 취수원 반대 특위 구성을 반대했다.

김재우 의원 역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고 대응키로 결론을 낸데다 취수원 반대 특위 제안자조차 특위가 의미 없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왜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찬반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특위 명칭에서 '반대'라는 말을 빼야 한다며 명칭변경을 요구했다. 이선우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면 반대 특위로 한정 짓지 말고 대책 특위, 또는 취수원 특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식 의원 또한 "반대 특위는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활동하는 것이 된다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확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특위 제안자인 윤종호 의원은 "11월 도출된 검증용역 결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특위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취수원 반대 특위 구성을 두고 찬반 논란 끝에 표결에 의해 구성안이 가결됐다. 취수원 반대 특위 위원장은 강승수 · 장미경 · 윤종호 · 김영길 · 양진오 · 김춘남 · 이지연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윤종호 의원, 부위원장은 김영길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장에 선임된 윤종호 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해 구미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 시정질의를 통해 장세용 시장의 답변을 들었고,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받았으며 전국체전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전국체전 특위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낙관 · 장세구 · 박교상 · 김택호 · 권재욱 · 김재우 · 이선우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낙관 의원, 부위원장 장세구 의원이 선임됐다.

김낙관 위원장은 "대회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해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해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_ yeenimom@naver.com

210 X 246 mm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제점 파악 나서

구미시의회, 예산 집행 등 점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속보=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구미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10월 8일~14일)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20일~25일) 준비 및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9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김낙관 위원장, 장세구 부위원장, 박교상, 김택호, 권재욱, 김재우, 이선우 의원 7명으로 위원회 구성일부터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한다.

조사대상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준비 및 추진사항 전반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북일보는 전국체전 기간 총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된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의 부실공사 의혹 및 수박 겉핥기 시설·안전 점검을 지적했다. (경북일보 2021년 10월 13일 7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3시께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시 복합스포

츠센터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는 안내와 함께 요란한 화재경보음이 울렸다.

약 1분 30초 동안 계속된 화재경보음에 센터 1층에서 불링 경기를 하던 선수들과 같은 층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대피했다. 모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밖으로 대피한 이들은 건물 주위를 이리저리 살폈다. 다행히 연기나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이었다.

당시 취재 결과 이러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는 전국체

전 개최와 시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비 65억, 도비 83억, 시비 96억, 총사업비 244억 원을 들여 2020년 12월 완공한 최신 건물이다.

이 외에도 전국체전 기간과 대회 후 구미시의회는 △전국체전 근무복 불량 △성화 안치식 행사 진행 미흡과 유튜브 영상 불량 △꽃탑 조성 미흡 △주 경기장 트랙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낙관 위원장은 "대회 준비 및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해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해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232 X 114 mm

경북도민일보

2022년 02월 17일 (목)

지역 09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 점검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각계 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56 X 186 mm

2022년 02월 17일 (목)

경북매일

종합 02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조사특위

시민운동장 등 현장조사 실시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시민운동장과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이 참가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력한기자 kimrh@kmaeil.com

115 X 69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시설물 꼼꼼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현장 방문

구미시의회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에서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보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



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전기자

116 X 111 mm

전국체전 관련 시설 문제점 확인 '매의 눈'

구미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특위

시민운동장·복합스포츠센터 방문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6일 구미 시민운동장과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찾아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조사특위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을 듣고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어 부족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는 향후 현장조사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제102회 전국체육대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구미 시민운동장과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찾아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동안 지적된 내용은 △전국체전 근무복 불량 △성화 안치식 행사 진행 미흡과 유튜브 영상 불량 △주 경

기장 트랙 문제점 등이다.

경북일보는 전국체전 기간 총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된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의 부실공사 의혹 및 수박 겉핥기 시설·안전 점검을 지적했다. (경북일보 2021년 10월 13일 7면)

김낙관 위원장은 "시민의 협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233 X 163 mm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점검 “총체적 부실 공사·관리 감독”

구미시의회 조사특위 “보통 문제 아냐...철저히 조사·책임 묻겠다”

구미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관련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 요소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부 시설물에서 드러난 문제를 넘어 총체적 부실 공사·관리 감독으로 보여진다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불법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특위)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사진〉**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 중에 드러나고 있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재공사, 1억6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부실한 체전 유니폼 (1벌당 7만8천원) 등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행한 주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최영열 기자

113 X 213 mm

전국체전 관련 시설 미비점 개선 '주문'

구미시의회 조사특위, 시민운동장·복합스포츠센터 현장조사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



전국체전 시설 현장조사 (구미시의회 제공)

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

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176 X 164 mm

2022년 02월 18일 (금)

서울일보

종합 02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특위, 현장 시설 점검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살피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 강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신영길·이봉한기자

115 X 106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특별위 시설 점검 실시

**구미시민운동장·복합스포츠센터 등 방문
미진한 시설개선, 이용활성화 방안 주문**

경북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최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구미/서주달 기자

116 X 104 mm

구미시 의회, 제102회 전국체전 특별 행정사무조사 실시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 증인으로 출석... 심도 있는 조사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시민운동장 및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

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호 기자

ga7799@gaibo.com

232 X 69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현장조사 실시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에서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2022.02.16.(수)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윤철수기자 csyun@sidaeilbo.co.kr

102 X 121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육대회 조사특위 현장방문

미비한부분 꼼꼼히살펴보고 개선방안 논의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에서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구미 시민운동장 및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전국체전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인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 현장방문단은 전국체전 관련 시설의 조성 경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일부 미진한 시설 상태의 개선을 강조하고 체전 종료 후 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전국체전 관련 시설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117 X 202 mm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제4차 회의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24일 제4차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전 추진과 관계된 공무원 등 증인 8명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사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인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 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인 '복합스포츠펀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체전 근무복 하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하자 보수 기간에 시예산을 투입

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등 불합리한 예산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체전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의회와의 엇박자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앞으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조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117 X 167 mm

전국체전 불합리한 예산 사용 집중 질타

구미시의회, 8명 증인 신문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조사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전 추진과 관계된 공무원 등 증인 8명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인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 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인 <복합스포츠펀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체전 근무복 하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하자 보수 기간에 시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등 불합리한 예산 사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깊이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

있게 조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체전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의회와의 엇박자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앞으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학전기자

236 X 80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토

집행기관 대상 불합리한 예산 사용 집중 추궁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지난 24일 제4차 조사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전 추진과 관계된 공무원 등 증인 8명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문을 진행하고 조사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인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 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인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체전근무복 하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하자 보수 기간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등 불합리한 예산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체전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의회와의 엇박자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돼 할 점이며, 앞으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집행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용호 기자 ga7799@gailbo.com

114 X 101 mm

국제뉴스

지역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가져

김용구 기자

행정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중립·신뢰·전행

[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최근 제4차 조사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재하는 김낙관 위원장. (사진=구미시의회)

이날 제4차 추진과 관계된 공무원 등 총인 8명을 초청시켜, 심도 있는 현안을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인력 의견을 광범했다.

이어, 그 동안 지적됐던 복합스포츠허브 누수, 검토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특성트럭, 폐자, 제천 근무복 하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에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하자 보수 기간에 시에 산물 투입해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등 불합리한 예산 사용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사진=구미시의회)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제4차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수동부재로 인한 역효과와 몇박지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사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집행기관은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굳이 있게 조사활동을 펼쳐 예정이다.

면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ienews@hanmail.net

김용구 기자 kkgu2580@naver.com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복합스포츠센터 등 하자 보수공사 불합리한 예산 사용 질타



견을 개진했다. 특히, 하자 보수 기간에 시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등 불합리한 예산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체전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의회와의 엇박자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관련 공무원 등 증인 8명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인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동안 지적됐던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체전 근무복 하자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

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 4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조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40 X 139 mm

2022년 04월 13일 (수)

일간경북신문

종합 07면

구미시의회, 근무복 부실 검수 감사 청구

체전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으며,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검증하고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3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학전기자

116 X 120 mm

2022년 04월 13일 (수)

경상매일신문

정치 02면

전국체전 부실 관리 등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구미시의회 조사특위, 3개월간 내실 있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다. 또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열 기자

183 X 54 mm

2022년 04월 13일 (수)

대경일보

지역 09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부실관리 조사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등 4개 안전 결과 보고서 채택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으며,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며 지적했던 사항들과 구미시 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 집약해 담아 놓았으니, 집행기관의 충실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며 향후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했고,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검증하고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후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정일 기자 inews1@naver.com

172 X 99 mm

2022년 04월 13일 (수)

대구일보

정치 04면

‘전국체전 부실관리’ 감사원에 청구키로

구미시의회, 체전 행정사무조사·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 보고서 채택

구미시의회가 12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 간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위는 각각 조사결과 보고서와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특히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개월 간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채택한 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또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117 X 112 mm

2022년 04월 13일 (수)

경북일보

사회 06면

구미 전국체전 예산 멋대로 집행됐다

시의회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

경북일보 지적 사실로 드러나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속보= 지난해 10월 8일부터 14일 까지 경북 구미 일원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설물 부실 관리와 부적정한 예산 투입 논란이 일고 있다.

대회 준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구미시의회의 3개월간의 조사결과다.

경북일보는 전국체전 기간 총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된 구미시 복합스포츠텐터의 부실공사 의혹 및 수박 겉핥기 시설·안전 점검 문제를 지적했다. (경북일보 2021년 10월 13일 자 7면 첫 보도)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부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체전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텐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시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 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국체전 행정 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안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검증하고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19일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면서 3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며 지적했던 사항들과 구미시 체육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 집약해 담았다”며 “집행기관의 충실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236 X 108 mm

서울일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

고 3개월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는 구미시 복합

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으며, 체전

2022년 04월 14일 (목)

종합 03면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가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지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낙관 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며 지적했던 사항들과 구미시 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 집약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며 향후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했고,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자료 검증과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영길기자

234 X 146 mm

경북매일

“전국체전 부실관리 조사해 달라”

구미시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구미에서 열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 집행부 관리 적정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02회 전국체전 및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가 두 체전 시설물 및 근무복 등에 대

한 부실 관리 사례를 포착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월 18일 구성된 후 석 달간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체전 근무복 하자 등 체전과 관련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4가지 사항을 조사했다.

특위는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 부실 검수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한다.

구미/김락현기자

115 X 75 mm

2022년 04월 14일 (목)

사회 06면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부실 관리 조사해달라”

복합스포츠센터·검도장 등
4개 주요 사항·조치요구 9건
감사원에 시설물 감사 청구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심도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조사 특위회에 따르면, 구미시 복합 스포츠센터 누수,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 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 있다.

특히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

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3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며 지적했던 사항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 집약해 담아놓았으니 집

행기관의 충실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며 “향후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각계각층에서 지적인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박미희 기자

232 X 76 mm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마무리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으며,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

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177 X 52 mm

【첨부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 22. 01. 12.)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2. 01. 18.)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조사계획서 작성/ 22. 01. 21.)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자문인 위촉 요청/ 22. 02.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구미시민운동장/ 22. 02. 1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22. 02. 16.)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자문인 의견 청취 및 증인 신문 / 22. 02. 24.)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현안 사항 및 기타 논의/ 22. 03. 10.)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집행부 제출 자료 검토/ 22. 03. 21.)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및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22. 04. 12.)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하자(볼링장 38번 라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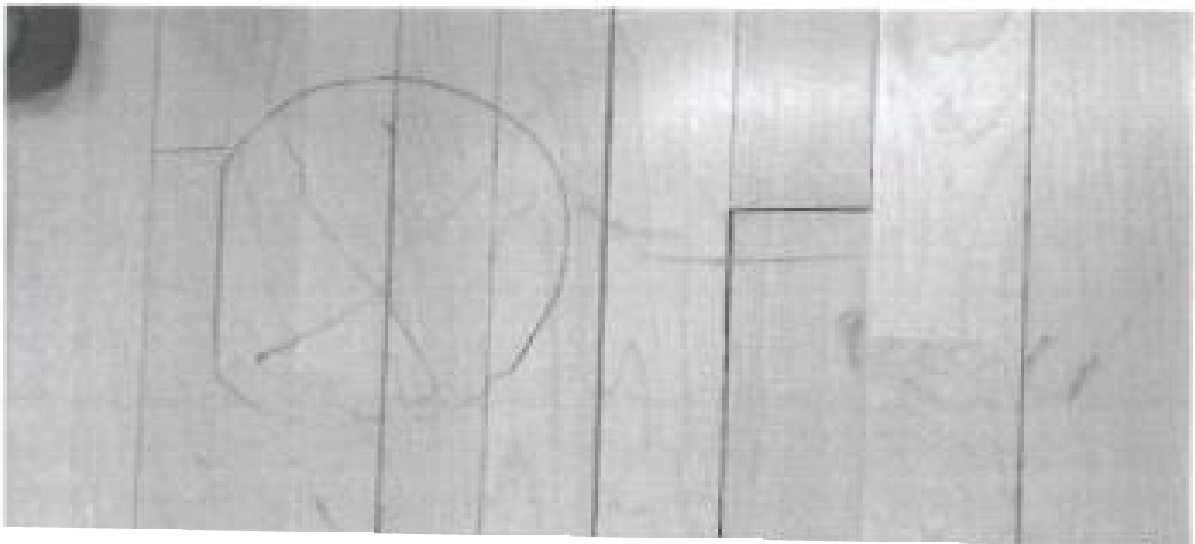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하자(남자 탈의실)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하자(데크 철거 전)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하자(데크 철거 후)



구미시 검도장 마룻바닥 유격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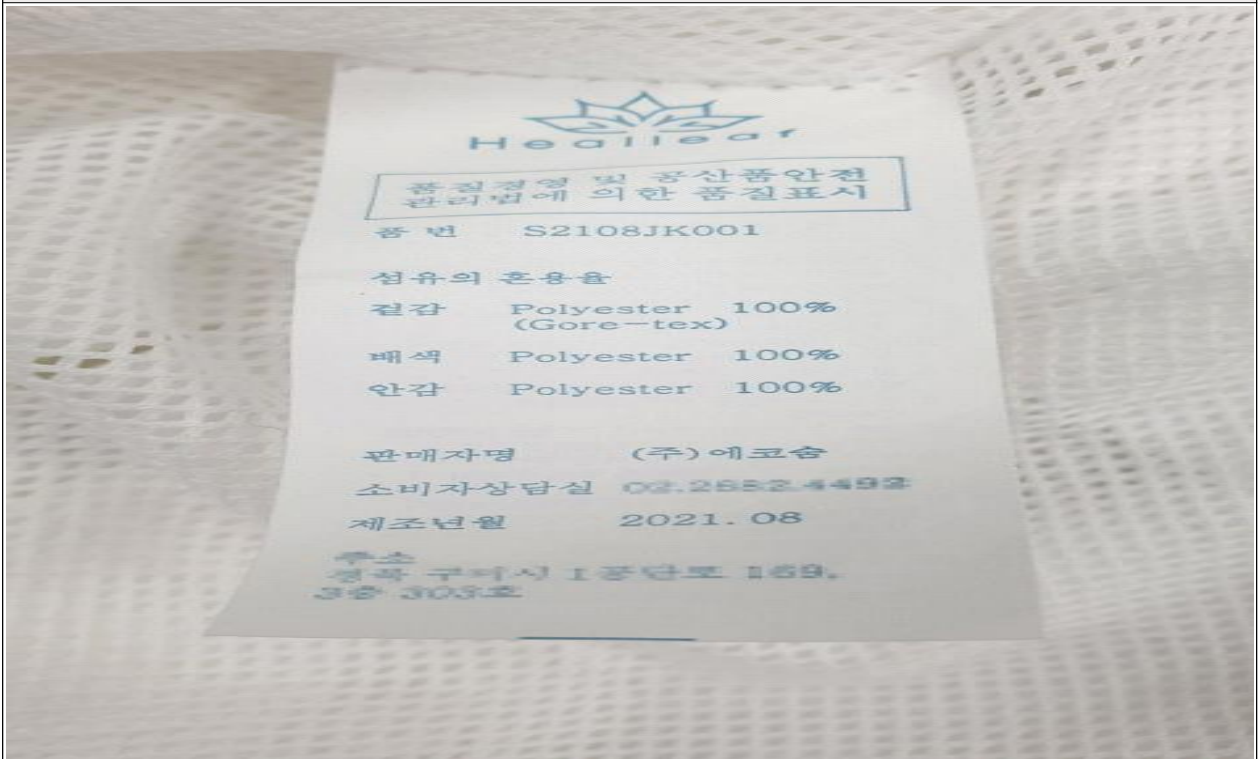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부분 하자보수(1)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부분 하자보수(2)



전국체전 근무복 (1)



전국체전 근무복 (2)